

한국교회와 사회복지의 대안적 방향

김동춘(천안대 기독교학부)

최근 한국교회내에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의 교회론적 정체성,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와의 상호연관성, 그리고 사회복지의 국가주의적 한계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의 핵심쟁점은 무엇이며, 그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제시하고자 한다.

I. 기독교사회복지의 교회론적 정체성 정립

(1).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의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한 신학적 근거를 역사적 기독교의 유산으로서 디아코니아신학으로부터 추출하지 않고 사회과학적 담론에 기초한 사회복지학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복지이념으로서 사회복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의 발현으로서 섬김의 신학과 윤리에 정초한 디아코니아 실천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회봉사의 교회론적 정체성 정립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사회봉사는 국가적 행위로서 사회복지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행위주체가 국가 혹은 시민적 기구라면, 기독교적 사회봉사의 주체는 기독교 신앙과 그 원리에 근거한 교회 혹은 기독교단체이다. 국가적-시민적 사회복지의 실현은 인간의 행복권 실현에 그 동기가 있다면, 교회적-기독교적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의 구원은총에 대한 응답이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신율적 명령에 근거한다.

(2).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의 상호 공통점이 있다.

복지적 국가와 봉사적 교회는 이념적 동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나라에 비추어 조망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직접적 실현이라면, 국가는 하나님나라의 상충이면서 동시에 상응의 측면을 지닌다. 가난한 자와 장애인, 사회의 밑바닥 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행위는 신적 살림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종말론적 하나님나라의 현실을 잠정적이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 복지는 하나님나라의 종국적 실현에 대한 비유이고 유비가 된다.

II. 사회봉사의 교회론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신학적 논의점들

(1). 사회봉사의 출발점으로서 구원과 윤리

기독교의 이웃봉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이웃을 향한 봉사는 선물로서의 구원에 대한 과제로서의 행위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행되는 은총적 구원행위에 대

한 그리스도인 편에서 시행되는 응답하는 행위요, 책임적 행위이다. 따라서 이웃섬김, 즉 봉사는 구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식이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요, 구원표지인 썸이다.

(2). 기독교중심의 디아코니아인가 창조신학중심의 사회복지인가

전통적인 디아코니아론은 모든 섬김의 전범(典範)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였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신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지닌 그 존재방식 자체가 이미 섬김의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사회봉사의 규범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웃봉사는 언제나 섬김의 그리스도를 향한 뒤따름의 행위요, 제자직의 실천행위이다.

그러나 구원론적 동기와 제자직의 실천요구에서 출발하는 기독교적 디아코니아론은 그리스도인의 이웃봉사가 지나치게 특수화된다. 반면 창조중심의 사회복지의 복지일반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기독교적 사회봉사의 지평을 보편화하게 한다. 창조신학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사회복지에 따르면 복지실현은 원창조의 회복이다. 복지는 죄로 인한 복지상태의 파괴로부터 에덴동산의 복지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며, 종말의 종국적인 복지의 완성이다. 복지의 실현은 전창조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지향점이다. 따라서 기독교중심의 사회봉사는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근거하여 기독교사회봉사의 자기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창조의 관점에서의 복지의 구현대상을 보편화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3). 교회의 참된 표식으로서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표현이다. 사회봉사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leiturgia), 증거(martyria), 친교(koinonia), 디아코니아(diakonia)로 구성되는 교회의 필수적 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사회봉사는 교회의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담지자로서 구회가 드러내야 할 당위적인 행위에 속한다. 하나님나라의 현존의 가시적 실재로서 교회는 이웃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육화된 삶의 구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를 위한 방향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근대 국가 출현 이후 국가화된 사회복지로부터 교회적 사회봉사의 원천을 재발견하는 길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사회봉사의 구분과 구별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봉사의 신학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